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1833-9030

전주매일 1833-9030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10월 23일 화요일 (음 9월 15일) 제215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국공립어린이집 설립 '맞손'

전주시, 보건복지부
하나금융그룹과 협약

민간지원 사업 선정 따라
기존 민간어린이집 1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있따른 민간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비리유치원 적발 등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전주시와 보건복지부, 하나금융그룹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손을 잡았다.

전주시는 22일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강당에서 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보건복지부와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 MOU를 체결했다.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기존 운영해온 민간 어린이집 1개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하나금융그룹은 전주시 어린이집 건물 매입에 필요한 최대 6억1000만원 예산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전주시는 22일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강당에서 하나금융그룹·보건복지부와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과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예산 1억 2000만원을 투입기로 했다.

매입된 어린이집은 전주시 재산으로 귀속되며, 시는 민간위탁 등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맡게 된다.

앞서, 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7월 하나금융그룹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에 공모했으며 지난 9월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신계숙 시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협약은 대기업의 사회환원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효철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회계투명성 강화 초점

당정청, '에듀파인' 적용 여부 포함 관련법 개정 방안 등 논의
25일 종합대책 발표... 유치원운영위원회 '유명무실' 지적도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여론이 들끓자 정부와 여당은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종합대책을 오는 25일 내놓을 예정이다. <관련기사 4면·5면>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청 협의를 갖고 사립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청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와 국공립유치원 등에서 사용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적용 여부를 포함한 관련법 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현재 유치원

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횡령죄 처벌을 가능케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해 조속히 입법에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치원 경비나 운영, 예·결산 등에 대한 지문역할을 통해 사실상 유치원을 자율감독할 수 있는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국공립 유치원 운영위는 유치원 규칙의 개정이나 예·결산, 학부모 부담 경비, 급식 등에 대한 사안을 심의한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운영위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자문을 받아야 한다. 학부모 운영위원은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해야 한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명단공개 여부는 충분한 법리 검토 후 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관계자는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회계 위주로 감사를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인원은 보장 없이 기존 인력을 총 동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매일 INDEX
2면 -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개헌 촉구
4면 - 143층 엑스트림타워 개발 탄력?

'인문도시' 전주만의 '오감만족' 인문축제

시,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인문주간 행사
강좌·체험·포럼 등 31개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가 시민들의 시각과 청각, 미각, 후각, 촉각 등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문학 축제를 연다.

시는 오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7일간을 인문주간으로 정하고 시민들과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제3회 전주시 인문주간' 행사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인문학, 시대를 만나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인문주간 행사에서는 66개 전주인문학 365 네트워크 기관·단체들이 참여해 △인문강좌와 △체험 △포럼 △전시 △포럼 △대회 등 6개 분야, 31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 인문주간에는 △엄마의 나라 동화 △다문화 가정의 힐링캠프 △어서와, 향교는 처음이지 등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도 마련돼 연령과 성별, 국적을 뛰어넘어 인문학으로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인문학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효철 기자

행사 첫날인 29일에는 오전 10시부터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개막식과 함께 인문특강이 진행된다. 개막 인문특강에는 '치킨은 왜 행복을 말합니까?'의 저자이자 빅데이터 전문가인 최재원 강사를 초청, '4차 산업혁명 시대,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심층적인 강연과 청중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또한, 인문주간 내내 박물관 탐정과 한국 춤 실습, 북 아트 만들기 등 인문체험은 물론, 각종 공연·전시, 대회 등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이번 인문주간 행사를 전주만의 색깔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밀 예정"이라며 "인문도시 전주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시민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인문학을 향유하면서 '삶의 힘'을 느낄 수 있도록 인문학축제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
완주에서도 착륙장 준공

완주군이 22일 응급의료 전용헬기인 '닥터헬기' 전용 착륙장을 준공하고 공식 출범식을 열었다.

중증·상환자, 뇌출혈,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등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응급환자를 빠르게 이송함으로써 장해를 최소화하고 생명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이 기대된다.

완주군 닥터헬기장은 운주면 산복리 611-61번지 일원에 조성됐다.

이번 출범식에는 박성일 완주군수를 비롯해 송지용 전북도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응급의료장비를 갖추고 전문의료진이 탑승하는 닥터헬기는 도내에서는 2016년 완주대학교병원에서 선정돼 운영 중으로 완주군에서 완주대학교병원까지 헬기운행 소요시간은 약 10여분 정도이다. /원주=이종복 기자

27일 도지사기 대학생 클럽대항대회

이들간 전주서 농구 등 3개 종목

'2018 도지사기 대학생 클럽대항대회'가 전주에서 열린다.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는 대학생 클럽대항대회가 27일과 28일 양일간 전주 일원에서 펼쳐진다고 22일 밝혔다.

대회는 대학교 동아리클럽 상호 교류를 통한 클럽활동 촉진 및 대학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지고 있으며 축구와 농구, 볼링 등 3개 종목이 진행된다.

클럽대항 리그 및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총 49개 클럽 600여명이 참여, 열띤 경쟁을 벌이게 된다. /장은성 기자

16개 클럽이 참여하는 축구는 전주 완산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리며 20개 클럽이 참여하는 볼링은 전주라온볼링장에서 진행된다.

13개 클럽이 출전하는 농구는 전주 고등학교 등에서 열린다.

최형원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은 "도내 대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단련과 건전한 여가생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의의 경쟁도 좋지만 체육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체육회는 해마다 청소년클럽대항대회와 대학생 대회를 꾸준히 마련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도시 백제왕도 익산

축! 전주매일 창간

제15회 익산 천만송이 꽃화축제

2018. 10. 26(금) ~ 11. 4(일) (10일간)

익산중앙체육공원

주최

익산시

문의

농업기술센터 ☎ 063) 859-4977